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경제·산업 대전환 시기에 대응한 인재 양성 방안 논의

- 국내 고급인재 유출방지, 해외 우수인재 유치 필요성 논의
- 양극화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관리 필요성 논의

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5.15.(금) 「제5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 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 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*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- * (거버넌스개혁반, 5명)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(분과장),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,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, 문소영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,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

금번 회의에서는 경제·산업 대전환 시기에 대응한 인재 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세대·계층간 자산격차 확대 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자·갈등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하였다.

문소영 前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최상위 국가인 이유 중 하나는 청년·노인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마음돌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
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AI 등 대전환 시기에 국가의 전략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유능한 인재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유입되고,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

참석자들은 경제·산업 대전환 시기에 유능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내 고급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였다.

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@korea.kr)

